



너와 내가 만드는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섬’

입력 2023.03.20. 오후 12:30 수정 2023.03.20. 오후 3:14

친환경 여행문화 동참 캠페인 전개
지난해 우도 디지털 실천 서약 이어
올해 제주 전역, 관광객 실천 추진
관광 자원 순환모델 일상 정착 기대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여행문화 캠페인이 확대 전개됩니다.

관광객은 물론 일상에서 실천하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모델들이 제시돼 실천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0일)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올 한해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여행문화 캠페인을 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와 함께 2022년부터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앞서 우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친환경 여행 선언을 위한 우도 디지털 서약서 도입 △일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를 위한 다회용컵 시스템 운영 △플라스틱 페트병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우도 캠페인 대표적 성과.. 한국관광공사 2023 친환경 여행지 선정도

우도 캠페인 주요 성과는 방문객수 증가 대비 재활용폐기물 발생률 저감, 친환경 여행 선언 위한 우도 디지털 서약서 6,896명 참여(2022년 12월 기준), 다회용컵 8,613개(반납률 94.1%) 사용, 한국관광공사의 2023 친환경 여행지 선정 등입니다.

또 올해 대상 지역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환경 여행을 위한 실천 서약을 도입하고, 지역내 관광기업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관광기업 등 민간 참여 넓혀.. 매칭 프로그램 운영

관광공사는 최근 호텔업계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관광분야 ESG 원탁회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18개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사는 원탁회의 운영을 통해 기업 간 정보 교류와 함께 ESG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관광분야 폐기물·재활용 업체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 온·오프라인 참여 프로그램 다채.. 관광객 등 동참 유도

또 글로벌 OTA를 연계한 도내 ‘지속가능한 여행 실천’ 숙소 확대, 지속가능 환경 경영을 위한 환경부 국가 인증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ESG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실현을 위해 관광분야에서 관광객, 도민, 관광기업이 함께하는 친환경 여행 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이 제주를 넘어 관광분야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Copyright © JI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22061>
